



오는 24일 공식 데뷔 무대를 앞두고 '아마레' 단원들이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최현해기자 choi@kwangju.co.kr

영암 영애원 '아마레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에 꿈을 담았어요”

2003년 바이올린 5대로 현악부 출범
아이들 봉사 하며 '배우는 삶' 배워

“자, 박자를 제대로 맞춰야죠. 바이올린에서 활을 너무 빨리 때지 마요. 오늘 뭘 때까지 연습합니다. 오늘 날 새도 되죠.”

주말이었던 지난 4일 아동복지시설 영암 영애원, 아마레 챔버오케스트라(이하 아마레)의 연습 현장은 활기가 넘쳤다. 영애원 가족들로 구성된 '아마레'는 오는 24일 목포체육문화센터에서 공식 데뷔무대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장난감 교향곡',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영암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던 김희숙(49)씨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영애원 아이들의 눈동자를 잊을 수 없었다.

김씨는 영애원에 직접 찾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영애원측은 5대의 바이올린을 구입했고, 10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아마레의 출발이었다. 2003년 현악부가 만들어졌다. 당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공모에 선정돼 콘트라베이스 등 악기를 구입했고 노동부에서 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합창단과 달리 챔버오케스트라는 운영하는 게 만만찮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강사진이다. 이에 10년 동안 봉사할 마음을 먹고 지금도 매주 두 차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희숙씨를 비롯해 김씨의 친분으로 '아마레'와 인연을 맺은 문주무·김규향부부 그리고 실비만을 받는 5명의 파트별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아이들은 파트별로 일주일에 두차례씩 교육을 받고 매주 토요일에는 합주 연습을 한다. 이번 공연을 앞두고는 음악캠프를 열고 매일 오전 9시~밤 10시까지 연습을 했다. 요즘에는 매일 오후 8시 화음을 맞춰보는 중이다.

'아마레'의 또 다른 힘은 든든한 후원자들이다. 오랫동안 영애원을 후원해준 현대삼호중공업 등 기업체는 물론이고, 매달 조금씩 정성을 보태는 후원자들이 있다.

'아마레'는 지금까지 영암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들에 출연해왔다. 무엇보다 장애인 시설, 병원 등 '사람'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 공연을 하며 '배우는 삶'에 대해 배웠다.

'음악'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애원에 들어온 김한솔(14)양은 플루트를 부르는 친구가 참 부러웠다. 친구를 이번 음악회에 초대했는데 떨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다고 말했다.

'음악'은 아이들에게 꿈도 심어줬다. 김지영(14) 은지(16) 자매는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한다.

악장을 맡고 있는 박정선(17)양도 마찬가지. 실력이 갖춰지면 지금 자신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처럼 나중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한다.

김성실 영애원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접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고 자존감이 무척 강해진 것 같다”며 “특히 실내악 합주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문의 061-473-20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주무·김규향씨 부부

“체계적 교육 통해
아이들에 음악봉사”

“자원봉사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자주 만나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일상이 됐죠. 아이들이 연주를 통해 꿈과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마레 챔버오케스트라'를 만든 일등공신은 지난 2001년부터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쳐온 김희숙(49)씨와 지휘는 물론 첼로 지도를 맡고 있는 목포시향 첼로 수석 출신 문주무(55), 김규향(40·플루티스트)씨 부부다. <사진>

문씨 부부는 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을 온종일 '아마레'와 함께 보내고 있다.

지난해 이태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씨는 “우리가 받은 음악적 재능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체계적인 교육에 나섰다”고 말했다.

문씨 부부는 이번 공연이 '아마레'의 꿈을 이루기 위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두 사람은 현재 '아마레'에서 첼로와 플루트를 배우고 있는 김지영·은지 자매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미술 세계화 어떻게...

스위스 BSi 재단 이원일큐레이터 초청, 특강

14일 시립미술관 본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시안겔러리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 시립미술관 본관에서 스위스 BSi 재단 이원일(사진) 큐레이터를 초청, 특강을 갖는다.

이원일씨는 뉴욕 현대미술관 초빙큐레이터와 2008 스페인 세비야 비엔날레 전시공동감독으로 활약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특강에서 '세계현대미술의 동향과 광주미술의 세계화'를 주제로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과 노하우, 미술의 세계화 전략 등을 소개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무료이다.

한편 이씨는 중앙대와 뉴욕대 미술대학



원 출신으로 토탈미술관, 갤러리 이즘,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을 거쳐 2004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아시아-태평양 담당 큐레이터로 활약했다.

해외에서는 2004년 폴란드 우치 비엔날레 초청 큐레이터,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전시회 초빙감독, 2005년 6~8월 상하이 젠다이 미술관 개관전 초빙감독, 2006 상하이 비엔날레 전시감독 등을 지냈다. 문의 062-510-014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캐나다 '인디언 밴드' 목포 공연

극단 갯돌 창단 29돌 기념 초청

목포에서 활동하는 극단 '갯돌'이 인디언 밴드 초청공연에 갖는다.

올해로 창단 29주년을 맞은 '갯돌'은 오는 12일 오후 1시 목포 모심문화센터에서 캐나다 치헤일리스 인디언 밴드 '노래하는 사냥꾼'(텍스웰) 초청 공연 및 의례 공연을 갖는다. '노래하는 사냥꾼'은 밴쿠버에서 120

km 떨어진 원주민 마을인 헤일리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밴드로 이번 공연에서 '여기 치헤일리스가 있나니', '길을 걸으며 부르는 노래' 등을 영어와 원주민 언어로 들려줄 예정이다.

'갯돌'과 '노래하는 사냥꾼'은 양국에서 서로 공연을 하는 등 문화적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문의 061-243-97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야금 앙상블 '가연하비' 정기 연주회

가야금앙상블 '가연하비' 제 2회 정기연주회가 11일 오후 6시 광주남구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정선옥(전남도립국악단원·무등가야금연주단 악장·사진)씨가 이끄는 '가연하비'는 초·중·고 대학생으로 구성된 가야금 연주단체다.

'가야금을 위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전통 산조와 창작 가야금곡, 팝송, 가요,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비롯해 북한 작곡가 공영송의 곡인 '초소의 불', 국거리 장단의 흥겨운 민요 '뱃노래', '붉은 노을', '헤이주드', '무릎 프 사슴군' 등이다.

양신승·허동관씨가 찬조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 advertisement section with columns for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and '제일 시네마'. Each column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 Includes a '영화안내' heade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each theater.